

Lee Sohee

그녀는 건축적으로 회화를 접근하는 김한나 작가와 일상의 감정이 고스란히 회화에 담기는 채효진 작가의 작품을 마음에 담았다. 평면의 영역에 있지만 각기 다른 매체를 다른 작가를 선호하는 이소희가 말하는 두 작가의 매력 포인트를 들어보자.

두 작가의 작품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김한나 작가의 작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과 관념을 물질로 끌어올려 보여준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원형이나 표면 같은 조형적 요소가 단순히 시각적인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감정의 단면처럼 다가오는 것이 인상적이다. 마치 아이스크림 한 스푼을 도려내 그 안의 질감과 흔적을 드러내듯, 작가의 작품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나 기억 같은 비물질적인 것들을 발견하곤 한다. 완전한 원에 다다르지 못하고 어긋나거나 잘려 나간 형태는 우리의 감정이 늘 정갈하고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만든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인간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것 같다. 조각나고 흘러내린 물감의 흔적, 굵히고 잘려 나간 표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감정의 파편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느껴진다. 이런 점에서 김한나 작가의 작업은 단순한 시각적 감상을 넘어, 관객으로 하여금 자기 내면을 비추어보고 감정의 충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채효진 작가의 작품은 낮익음과 낯섦이 교차하는 순간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낸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도시의 화려한 건물 사이에 숨어 있는 허름한 풍경이나 밤바다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편안함처럼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가적인 장면들을 화면에 옮겨 놓았다. 그래서 채효진 작가의 작품을 보면 단순히 풍경이나 인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경험하는 복잡한 감정의 결을 함께 마주하게 되는 것 같다는 기분이다. 또한 장치에 색을 스며들게 하는 기법도 인상적이다. 반복적인 붓질로 여러 겹의 색을 쌓아내는 과정은 복잡한 감정을 하나씩 덜어내고 정리해 가는 방식을 연상시킨다. 표면에는 보푸라기가 일어나 흙 같은 질감이 형성되는데, 따뜻하고 포근한 촉감에 정서적인 위안을 받는 것 같다. 모호하고 양가적인 감정의 순간을 포착해 그것을 따뜻하면서도 밀도 있는 화면으로 건네주는 힘이 매력적이다. 단순히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면에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것 같달까?

소장작 소개 하나하나에 애정이 가득 느껴집니다. 자기소개에 써주신 내용처럼 어떤 작품의 예술적인 축을 이성적이고 기술적인 시선으로 세밀히 훑아보는 듯 싶었어요. 컬렉팅 역시 작가들의 작업 못지 않게 치열한 과정을 거치는 듯합니다(웃음). 작가의 작품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마음에 남은 작품은 2025년 눈 컨템포러리에서 선보였던 김한나 작가의 ‘반작용’이라는 작품이다. 나무 패널 위에 입체적으로 올려진 우레탄이 촉각적인 경험을 자극하는 동시에 오일과 아크릴이 뒤엉켜 만들어낸 복잡한 형태는 한눈에 다 파악되기보다 시간을 들여 찬찬히 들여다보아야 그 감정과 의미가 전해진다. 모든 것을 단번에 보여주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서 형태와 색을 하나하나 읽어내야만 비로소 그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입체적인 표면과 얹혀 있는 색채를 따라가며 작품을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즐겁고, 동시에 작품과 감정을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것처럼 다가왔다. 또 다른 마음에 남은 작품은 채효진 작가의 ‘구원자’이다. ‘희망적인 이야기가 때로는 폭력적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성모마리아를 연상시키는 종교적 조각상을 그린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 작품을 보며 종교나 영웅담에서 흔히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는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다양한 해석과 열린 결말을 선호하는 나의 태도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공감이 되었다. 단일한 구원이나 절대적인 결론이 아닌 다채로운 가능성과 모호함 속에서 이야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점이 이 작품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IT 업계에서 9년째 일하고 있는 직장인이자 5년 차 아트 컬렉터. 매우 이성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에 종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예술을 삶의 중요한 축으로 두고 있다. 또래 아트 컬렉터들과 모여 만든 ‘마이크로 컬렉터스 클럽’의 구성원이다. 예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자 고민하며 다양한 예술 애호가들과 소통하고 있다.

‘마이크로 컬렉터스 클럽’이라는 아트 컬렉터들의 모임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활동들이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마이크로 컬렉터스 클럽’은 또래 아트 컬렉터들이 모여 만든 작은 공동체이다. 2030 세대의 젊은 컬렉터들이 중심이다 보니, 대규모 자본 중심의 컬렉팅이나 주류 미술 시장의 흐름과는 다른 결을 지니고 있는 점이 특별하다. 대화의 중심은 늘 ‘개인의 삶’에 있다. 소규모 공동체를 지향하다 보니 어느새 단짝 친구들처럼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깊이 공유하게 되었다. 작품을 통해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그 작품이 각자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더했는지를 나누다 보면 단순히 소장자의 차원을 넘어서는 교류가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우리가 가진 예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인스타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보다 넓은 범위의 아트 컬렉터와 예술 애호가들과 소통하고 있다. 나에게 ‘마이크로 컬렉터스 클럽’은 예술을 통해 연결된 소중한 커뮤니티이자 동시에 스스로 컬렉터로서 더 많이 배우고 생각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다.

미술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지 또 미술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전시회를 자주 다니면서 미술에 대한 좋은 기억과 내적인 친밀감을 쌓아왔다. 성인이 된 이후 본격적으로 미술에 깊게 빠져들게 된 계기는 코로나 시기였다. 원래 여행을 무척 좋아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 이동도 쉽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서울 시내에서 갈 수 있는 전시장들을 찾아다닌 게 계기가 되었다. 흥미로웠던 점은 같은 전시장이라도 전시가 바뀔 때마다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덕분에 한 번 방문했던 공간을 전시가 바뀔 때마다 다시 찾게 되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여행을 좋아했던 이유가 낯선 환경과 다양한 사람들 속에 나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에서 오는 짜릿함 때문이었는데 전시를 통해서도 비슷한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 외국에 가지 않더라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작가들의 생각과 감정을 작품을 통해 만나고 영감을 얻는 경험은 굉장히 신선하고 특별했다. 마치 작품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미술은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삶에 끊임없는 자극을 주는 대화 상대가 되었다. 코로나 시기가 끝난 지금도 자연스럽게 여행 보다 전시장을 찾는 일이 일상의 큰 즐거움이 되었다.

다양한 전시들 사이에서 나만의 작품을 만나기까지는 여러 여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작품을 컬렉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작품을 컬렉팅 하는 나만의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시를 다니며 작품 감상에 몰두하던 어느 날, 우연히 전시장 한 켠에 놓여 있던 작품 판매 리스트를 보았다. 그전까지 미술 작품은 아주 비싸고 연령대가 높은 부유한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평범한 직장인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젊은 동시대 작가의 작품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다.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사는 대신 작품을 한 번 구입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그 자리에서 첫 작품을 구입하면서 아트 컬렉팅 여정이 시작되었다. 작품을 고르는 기준은 ‘이 작품이 나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는가’이다. 실제로 나는 작품을 이야기할 때 “이 친구”, “저 친구”라고 부르곤 하는데, 단순히 예쁘고 화려해서 선택하기보다 직관적으로 마음이 끌리는 작품을 고르는 편이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직관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결국 앞으로 작품과 나누게 될 대화에 근거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떤 작품은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지만 시간이 흐른 뒤 삶을 돌아보면 ‘아, 그래서 내가 그 작품에 끌렸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기준도 빼놓을 수는 없다. 작품을 만난 순간의 통장 잔고도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웃음).

컬렉션 중 오늘 가장 떠오르고 기억에 남는 작품을 소개해 주세요.

요즘 피아노를 배우는데, 피아노 위에 걸어둔 김소정 작가의 ‘느린 하루’라는 작품을 자주 감상한다. 침대에 옆으로 누워 휴식을 취하는 인물의 모습 뒤로 다양한 색의 면과 선들이 복잡하게 얹혀 있는 작품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침대에 누우면 ‘이제야 한숨 돌려볼까’ 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오늘을 제대로 마무리한 걸까?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라는 복잡한 생각이 밀려온다. 이 작품과 처음 마주했을 때도 마침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어 단번에 눈길이 갔다. 침대에 누운 인물이 자신처럼 느껴졌고 그 뒤로 펼쳐진 복잡한 형태들이 나의 감정이나 상황과 닮은 듯했다. 마치 침대에 누워 복잡하게 얹힌 생각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나의 모습이 투영된 듯한 기분이었다. 이 작품을 통해 나와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는 동시대 작가를 만난 듯 했고, 친구처럼 내적인 친밀감을 느끼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작품을 바라볼 때마다 나 자신을 비춰보기도 하고, 때로는 기억 속 누군가의 모습을 떠올리며 늘 새로운 감각으로 다채롭게 감상하고 있다.

작품에 대한 촘촘한 설명을 들을수록 작품을 통해 치열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고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컬렉팅이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요?

나에게 컬렉팅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삶의 기록”이다. 컬렉션을 펼쳐놓고 보면, 각각의 작품이 인생의 특정한 시점과 감정을 증언해주고 있다. 마치 일기를 글 대신 작품으로 써 내려가는 느낌이다. 또 하나 중요한 가치는, 작품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작품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또 어떤 작품은 깊은 위로를 주기도 한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삶이 더 입체적으로 확장되는 것 같다. 결국 컬렉팅은 나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자기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